



“더불어 승리” 31일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앞 5·18 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4·13 총선 승리 출정식에서 광주지역 후보자들이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투표는 3번” 31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서 열린 국민의당 ‘4·13 총선 승리를 위한 출정식’에서 광주후보자들이 손가락 3개를 펴보이며 기호 3번을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금남로 일대 문화축제 거리 된다

23일~11월 土 축제 공연 전시

광주를 대표하는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가 4월부터 축제·공연, 전시가 어우러진 문화의 길로 변신한다. 광주시는 오는 4월23일부터 11월까지 매일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Fringe Festival)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전문가, 아마추어 등 다양한 문화예술인이 참여해 누구나 자유롭게 재능과 끼를 선보이는 열린 축제다. 시는 문화전당과 맞닿은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전당을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문화전당을 찾도록 프로그램을 짰다.

행사를 위해 금남로거리에 대형 공연이 가능한 창조·열정의 공간(무대 2곳), 청년참여 아트샐러 공간, 관람객을 위한 프리지휴식 공간 등이 마련된다. 문화전당 앞 회화나무 주변, 충장로우체국 앞, 금남공원, 민주의 종가 등 5개 장소에서는 k-pop, 연주, 마술, 댄스와 다양한 버스킹(busking·길거리 공연)이 펼쳐진다. 시는 프린지페스티벌 개최 원년인 올해는 전국의 공연팀이 참여한 거리 공연을 ‘매년 보러 오는 대표 관광명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인천 시 문화도시정책관은 “세계적인 도시마다 광장문화를 통해 도시의 색깔을 표현하고 있다”며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준비를 잘한다면 광주에도 세계적인 길거리공연이 펼쳐지는 멋진 광장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화두는 정권교체... 민심 ‘전략적 선택’ 어디로

뉴스초점
광주·전남 총선 초반 이슈

4·13 총선을 13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이 혈투를 벌이고 있다. 우선 광주 민심을 잡기 위해 두 야당은 정권교체를 화두로 각기 ‘야권적통론’과 ‘야권재편론’을 내세우고 있다. 더민주의 ‘수도권에서 절대 열세인 국민의당으로는 대선 승산이 없다’며 자신들이 야권의 적통이자 정권교체 주도 세력을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수도권에서 전멸, ‘호남 자민련’에 그칠 것이라며 광주 민심의 전략적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야권 연대에 부

더민주 ‘야권 적통론’ 분열로 패배하면 정권창출 어려워
국민의당 ‘야권 재편론’ 호남이 주도해야 정권교체 가능
선거구 합쳐진 전남 ‘2野 대결에 소지역주의’ 겹쳐 혼전

정적인 국민의당을 겨냥, “4월 13일은 야권 분열세력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광주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총선에서 분열로 패배하면 야권 지지 기반 붕괴 등으로 정권 창출을 장담할 수 없다며 60년 야권의 적통인 더민주 지지자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당은 더민주가 패권주의 정당으로 전략하면서 수권 능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두 차례의 대선과 총선 연패가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최근 공천에서도 진문(진 문재인)

정당임을 확인시켰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양당 체제가 아닌 야권 재편의 길을 통해 광주 등 호남 민심이 주도하는 정권 교체를 역설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양당체제에서 호남 정치권은 더민주에서의 종속 구도를 타파하기 어려워 다시 정치적 하청 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총선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당을 내세워 대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및 야권 연정 등의 카드로 호남이 정권 교체

의 도 세력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에서는 두 야당의 총력전에 소지역주의까지 겹쳐지면서 판세가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전남 국회의원의석수가 11석에서 10석으로 줄면서 선거구가 합쳐지는 경우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별개였던 고흥·보성과 장흥·강진이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지고, 순천·곡성에서 곡성이 떨어져 광양으로 편입됐다. 또 무안·신안에는 영암이 합쳐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유권자 수가 많은 지역 출신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등 판세가 출렁이고 있다. 당장,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는 고향인 곡성이 떨어져 나가면서 상당한 약세에 시달리고 있는가 하면 무안·신안은 영암의 편입에 따른 박종영 전 시사의 출마 등으로 선거 구도가 혼전 양상

을 보이고 있다. 광양·구례에서는 새로 합쳐진 곡성 표심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지역주의 바람이 태풍이나, 미풍이나에 따라 전남지역 선거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지역 민심은 주름살이 깊어가고 있다. 그 어느 정당도 공천 과정 등에서 지역 민심의 기대를 충족시킬만한 혁신과 비전, 헌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선거 막판까지 지지 후보와 정당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면서 전략적 선택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그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일제히 출정식... 본격 세몰이

Ⓛ 선택 4·13 D-12
4·13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은 일제히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관련기사 3·4·5면>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권 후보 출정식을 열고 공명선거와 총선승리 결의를 다졌다. 광주 총선 후보 8명, 동구청장 재선거 후보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지지자, 유세차량들이 총집결해 더민주의 세를 과시했다. 후보들은 당에

공식 선거운동 첫날
광주 민심잡기 총력
서 주는 파란색 운동화를 전달받았고, 후보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선거운동기간 합쳐서 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후 후보들은 흠어진 광주민심을 잡기 위해 큰절 100배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당 후보들도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수완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국민의당 승리는 광주 시민의 승리’라는 슬로건

아래 출정식을 열고 총선 승리를 결의했다. 후보들은 지지자 및 운동원과 함께 선거 승리의 염원이 담긴 흰색 풍선을 하늘에 띄우며 결의를 다졌다. 승리원 퍼포먼스를 마친 후보들은 저마다 광주에서 전승을 다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의당 후보들은 5·18 구묘역, 운산원 열사 생가 등을 방문한 뒤 서구 광천동 이마트 앞에 모여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기자회견으로 출정식을 대신한다.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도 전남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이날은 공동 출정식 없이 후보별 출발같이 나섰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현재 “성매매 여성 처벌 특별법은 합헌”

“전진한 성풍속 위해 필요”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관련기사 7면> 현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1항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현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성매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매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광주 식목일 2·3월로 바뀌어 ▶7면
신 팔도유람-순천만 정원 ▶18면
이종범·이순철의 KIA 전망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2016 내가슴愛약속

내 가슴의 건강을 지키는 아리따운 실천

광주 상무시민공원 6월 12일(일)

종 목 10km / 5km
참 가 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기 념 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양말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 9744
참가신청 선착순 접수 <http://me2.do/xRtD1LwJ>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을 입력하세요.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 헤라, 아리따움, 르까프

AMORE PACIFIC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